믿음·실천 함께 해야 '信心' 완성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수행신심분〉에 들어가서 먼저 네 가지 신심(信心)을 말한다. 정정취(正定聚)에 들어가지 못한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신심을 설한다 하였는데 곧, 부정취(不定聚) 중생을 두고 말한 것이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확실 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일러준 것이다.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성숙된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완덕(完德)을 계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것을 위한 필수 요소가 진여를 즐겨 생각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근본을 믿는 것(信根本)이라 하고 첫 번째에 두었다.

근본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불생불멸하는 진여의 성품이 중생 자신에게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불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무척 당연한 것이지만 중생들은 곧잘 자기 부처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근본이 진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즐겨 생각하는 자세를 갖추고 이 근본에 대한 믿음이 확립된 다음에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믿게 된다. 진여는 참되고 한결같은 중생의 마음이다. 동시에 이는 만물의 근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의식되어지고 대상화(對象化)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생의 미혹에 의해 만물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생길 뿐 그 근본에 돌아가면 이러한 차별의식은 저절로 소멸되어진다.

"믿음만 있고 실천 없다면 신심은 성숙되지 못한다"

원효 스님은 진여가 중생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므로 근본이라 한다 하였다.

또 〈열반경〉에는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凡有心者 皆當得阿褥多羅三 三菩提)"고 하였다. 중생의 마음 자체(心體)가 미혹이 덮이기 전에 본래의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불보(佛寶)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진여의 마음을 회복한 부처님에게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는 확신에서 항상 친절히 가까이하면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받들고, 착한 마음씨(善根)를 일으켜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기를 바라야 한다.

세 번째는 법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항상 온갖 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넷째 승보의 믿음에 대하여는 올바른 수행을 하여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여러 보살들을 친하여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라 하였다.

승가(僧伽, samgha)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그 구성원들의 바른 수행을 믿는 것인데 여기에는 보살들도 포함된다. 보살들은 자신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상의 네 가지 믿음에 대한 설명에서 믿음을 실천적인 행이 수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효 스님은 이 대목에 대한 주해에서 믿음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면 신심이 성숙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신심은 어떤 외적인 계기에 의해 사라지는 수가 있으므로 바라밀다의 완덕을 실천해야 신심이 완전해진다 하였다.

원래 신(信)은 범어 스라따(sraddha)를 번역한 것인데 지적(知的)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말로 이해를 통해 마음에 의심이 없어져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구사론〉이나 〈보살본업경〉 등 에서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믿음이다(信者令心澄淨)"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보통 믿음을 신해(信解)라 하여, 믿고 이해하는 것이라 말해 왔는데 〈기신론〉에서는 신(信)과 해(解)와 행(行)을 합쳐서 한 말이라 볼 수 있다. 용수보살의 〈지도론〉에서는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 건너다(佛法大海 信爲能入 智爲能度)"라 하였으며, "믿음은 보배가 있는 산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보배를 주워오는 손과 같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보배를 취할 수 있는 손이 있는 것과 같고 믿음이 없으면 보배를 가져주울 수 있는 손이 없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면서 심수(信手)라는 말이 나온다. 또 "믿음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는 〈화엄경〉의 구절도 자주 인용 소개되는 말이다.

구하는 자가 얻지 못할 때 보살은 괴롭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⑳ 보살이 가지는 근심

乞者聞施者財物 Ꞩ盡生大苦惱。菩薩求乞者不得之時心生憂惱復過於彼百千萬倍。於求乞者菩薩思惟。佛言求不得苦Ꞩ復如是。菩薩於乞求者生難遭想。所以者何。若無乞者檀波羅蜜則不滿足。無上菩提則不可得。是故於乞求者深生悲惱。(걸자문시자재물궤진생대고뇌。보살구걸자부득지시심생우뇌부과어피백천만배。어구걸자보살사유。불언구부득고진부여시。보살어걸구자생난조상。소이자하。약무걸자단바라밀즉불만족。무상보리즉불가득。시고어걸구자심생비뇌。)

번역

구걸하는 이는 보시하는 이의 재물이 다 없어졌다고 들으면 큰 고통과 번뇌가 생기고, 보살은 구걸하는 이가 얻지 못할 때에 근심과 괴로움이 생기나니, 구걸하는 이보다 백천만 배나 더합니다. 구걸하는 이에 대해 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진실로 다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 대해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나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만약 구걸하는 이가 없다면 보시바라밀이 불만족스러워지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는 이에 대해 마음 깊이 자비심과 걱정을 일으킵니다.

해설

보살도 괴로워할 때가 있다. 아니, 오히려 구걸하는 이보다 백천만 배나 괴로워한다. 그 이유는 구하는 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에 빠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보살의 마음은 자신의 재물이 보시하느라 바닥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이가 얻지 못해 근심하는 게 마음 아프고 더 괴로운 것이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만날 때,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의 마음을 낸다.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는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인연을 말한다. 보통 중생이 부처님 불법의 정수를 만나 수행자의 길을 가기가 이처럼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며, 수행자가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말씀을 만났으니 그 귀한 인연에 감격하여 수행정진하는 마음이다.

보살이 구걸하는 이를 볼 때, 귀한 인연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보시바라밀을 만족하게 이루기 위함이다.

한편, 보시의 과보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화엄경〉 '보살문명품'에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묻는다. '불자여, 여래의 복밭은 평등하여 다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중생들의 보시한 과보가 같지 않음을 보이나이까.'

목수 보살이 게송으로 답한다. '마치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 빛을 따라 그림자를 나타내나니 부처님의 복밭도 그와 같아서 마음 따라 모든 과보를 얻게 하도다.'

부처님께 보시란 많든 적든 평등하다는 것이고, 다만 보시하는 이의 마음 따라 그 과보가 돌아간다는 것을 이 경구를 읽으며, 제바라보살이 말하는 보살심을 생각한다.

"마음 따라…/ 물질 따라서 아니고,/ 어찌하면 중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따라…"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지극히 동물적인 뿌리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보면 서두르고, 이성(異性)을 보면 설레며 접근을 시도한다. 밝음보다는 어두운 쪽에서 정신적 방황을 더하기 마련이요 뺄셈보다는 덧셈을 즐긴다.

시기와 질투는 기본이요, 꾸미고 덧칠하는 능청은 본능적이다.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능멸하며, 강한 자에겐 아첨하고 굽신거리며 배알을 숨긴다. 나누는 데는 인색하고 모으는 본능은 때와 곳을 가리지 않는다. 도적질을 하면서도 명분을 앞세우고 형제끼리도 실리(實利) 를 챙기며 다툼을 마다하지 않는다.

입을 열면 6할이 거짓말이요, 몸을 움직이면 절반이 어두운 쪽에 기울고 있다. 주면 좋아하고 달라하면 찡그린다.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요, 나에게 못하면 나쁜 사람이다. 친구 간의 사귐에는 이익을 계산하고 이성간의 교제에는 짝짓기를 생각한다. 타고난 성격도 상대에 따라 위장술을 즐긴다. 인격도 품성도 돈으로 계산되고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도 지폐의 무게로 결정된다.

옳은 것도 그른 것도 힘의 논리에 따라 저울질이 다르고 편 가르고, 선(線)긋기를 즐겨 오늘의 동지가 내일에는 적이 된다. 개천에서 용(龍)난다는 이야기는 전설 속에서 박제된지 오래고, 오고가는 현찰 속에서 우정도, 사랑도, 인간관계도 형성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지만 끼리끼리 문화가 출세도 보장하고 회전의자도 안겨준다. 하여, 배를 타지 않고 안방에 앉아서도 심한 배멀미를 느끼며 졸아든다.

타는 목마름에 갈증이 더해 두 눈 멀건히 뜨고도 가위눌리는 현실이 팍팍하고 고단하다.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모이지만 없을 때는 친구마저 사라진다.

사람이 가장 정직할 때는 혼자 있을 때 순수하고 정직하며 진솔하다. 둘이 있으면 경쟁하고 셋이 있으면 다툼이 비롯된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이룸과 가득함이요, 가장 자유로울 때는 벗어남과 누림이다. 여자는 민낯에 위장술을 즐기듯 덧칠할 때 자기만족을 누리지만 남자는 먹이사슬에서 수확을 거둘 때 배부름을 느낀다. 그렇지만 여자나 남자나 동물근성을 즐기나 숨기려한다. 솔직을 병으로 알아 말과 행동이 보호본능을 발휘한다. 키가 자랄수록 내 탓은 줄고 네 탓으로 확대되며 부모 탓, 친구 탓, 조상 탓까지 끌어들인다.

거기다가 긍정적인 착각보다는 부정적인 착각으로 몸과 마음이 졸아들며 팔자타령을 늘어놓거나 운명론으로 기울려 게으름의 터널에서 깊은 잠을 즐긴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데도 모으고 거둬들이려는 소유욕에서 건강을 잃고 있다.

내가 누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는데도 그 누구는 영원히 내 것이길 바라며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순수해야할 종교계의 신앙도 신도를 먹이삼아 현찰 거둬들이는 덧셈놀이에 치졸할 만큼 분주하다. 헌금과 시줏돈의 무게에 따라 천국의 문이 쉽게 열리는 것처럼 능청떠는 성직자는 성직자일리 만무하다.

사람의 옷 색깔에 따라 인격의 높낮이가 결정될 리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례라며 관습이라며 부끄러움을 서로 용서한다. 대화의 단절은 오해를 불러들이지만 이해의 결핍은 작별의 마침표에까지 치닫는다.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게 '사람다움'
사람은 배려·이해를 추구하는 '동물'

사람은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내 행복과 자유가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해대거나 타인의 행복과 자유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여기에서 '답다'는 것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드러내고 감출 것도 없이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모습일 것이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생활의 언어로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세상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이 참사람일 것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배려와 이해, 용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더러는 가슴 싸한 아픔도 길들이면서, 더러는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동물 중의 동물이다. 마음 열어 진리와 하나될 수 있는.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